

국토부는 GTX 사업을 국민 최우선 관점에서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

< 보도 내용 (조선일보, 4.18) >

◆ ‘국피아’가 꺾친 민간 철도 사업...GTX-A 시행사 대표가 국토부 전관

- GTX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최소 1,000억원 이상 배상 받을 가능성이 큰 GTX-A 사업의 시행사 대표가 국토부 전관 출신으로 확인

□ GTX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인한 운영 손실은 서울시(박원순 시장, '17.~'19.)의 영동대로 통합개발 방식 변경(국제 공모 실시 및 설계변경 등)에 따른 것으로, 사업시행자 대표의 출신 기관과는 무관합니다.

- 또한, GTX-A 사업의 실시협약 체결('18.12) 당시에는 사업시행자의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중 국토부 출신 재직자가 전혀 없었습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GTX 사업이 안전하게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 최우선 관점에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| 책임자 | 과 장 | 서정관 (044-201-3964) |
| | | 담당자 | 팀 장 | 육인수 (044-201-3963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심보경 (044-201-3967) |